



「이모세야마온나테이킨」에서

The National Bunraku

Theatre of Japan



인형조루리분라쿠는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예능의 하나로, 다유유·샤미센·인형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진 종합예술입니다. 2003년에는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분라쿠의 성립은 에도초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옛날에는 「아야츠리인형(꼭두각시)」으로, 그 후에는 「인형조루리」로 불렸습니다. 다케모토 기다유우의 기다유우부시와 치카마츠 문자에몽의 작품에 의해, 인형조루리는 큰 인기를 얻어 전성기를 맞게 되고, 다케모토작가 창설됩니다. 그 이후 도요다 케좌를 시작으로 몇몇의 인형조루리가 성쇠를 거듭하여, 막부말에 아와지의 우에무라분라쿠켄이 오사카에서 매우 중심적인 존재가 되어, 이윽고 「분라쿠」라는 명칭이 인형조루리의 대명사로서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다유우(사설꾼)와 샤미센

다유우와 샤미센은 대등한 입장에서 경연하면서, 기다유우부시를 이끌어 갑니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기투합하는 것이 중요하며, 긴박한 호흡을 거듭해 가면서 극을 이끌어 갑니다.



다유우의 사실

다유우는 기다유우를 통해 조루리의 세계를 묘사해 내는데, 장면의 정경, 이야기의 배경, 등장인물 전원의 대사 등,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그 때, 사실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목소리만을 기교적으로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풍부하게 희노애락을 읊어내고, 백역의 성격, 정서 등 인간의 본질을 깊게 파고 들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겐다이

유카혼



다유우가 무대에서 사용하는 대본. 1페이지에 5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서 공연 당사자인 다유우가 직접 쓰거나, 아니면 필사 전문가가 씁니다. 또한 스승에게서 제자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카혼은 다유우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샤미센

분라쿠의 샤미센은 다유우의 사실과 일체가 되어 기다유우부시의 정감을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샤미센은 호소자오, 슈우자오, 후토자오의 세 종류로 나누는데, 분라쿠에서 사용하는 후토자오샤미센이 가장 크고 무거우며, 고마나 바치도 크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중후하고 굵은 음색이 인간성의 본질을 파고 드는 기다유우에 걸맞는 것으로, 소리 하나에도 배경이나 심정을 묘사해 낼 수 있는 표현력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후토자오샤미센

고마

바치

샤미센의 역사

샤미센은 에이록구년간(1558~ 1570)류우큐우(오키나와)에서 오사카의 사카이로 도래했다고 전해지며, 모양은 세 가닥의 현에 뱀가죽으로 된 몸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본내에서는 뱀가죽이 없기 때문에, 음색, 음량을 고려하여 개가죽이나 고양이가죽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비파의 영향을 받아 몸통이 현재와 같은 크기가 되었고, 바치를 사용하게끔 되었습니다. 에도시대, 일본의 예술감각과 창조적 정신에 의해, 독특한 진동음을 내는 사와리, 음향적 효과를 고려한 아야스기조각의 몸통, 특수한 이음새로 사오를 잇대도록 하여 세 부분으로 분리되도록 한 샤미센 등, 독특한 발전을 하였습니다. 음악적으로도 일본 고래의 음악과 결부하여, 나가우타, 고우타, 지우타, 기다유우부시 등 각종 계열을 낳기에 이르렀습니다.

마루혼에 대해서



기다유우부시의 한 곡 전부를 수록한 판본. 전 장을 하나에 모아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또한 이라고 적고, "마루혼"이라고도 읽습니다. 다른 조루리에서는 쇼우혼 이라고 부르고, 마루혼이라고 부르는 것은 기다유우부시뿐입니다. 인형조루리연극

에서는 처음 공연할 때 반드시 마루혼을 간행했습니다. 마루혼은 7행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 8행과 9행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분라쿠의 인형

분라쿠의 인형은, 인형 하나에 세 명의 조종수가 조종하는 세계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미묘한 움직임은 물론 심정까지 표현할 수 있으며, 살아있는 사람 이상으로 호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형은 탈과 의상 등, 따로따로 나누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연에서는 그 배역에 맞추어서, 인형의 탈에 가발이 씌여지고, 거기에 의상, 손발, 몸통, 소도구 등이 걸들여지는데, 인형조종수가 직접 치장을 합니다.



인형의 탈



분라쿠의 인형 탈에서 보여지는 표정은 실로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특정한 배역 전용의 인형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한 종류의 인형 탈은 다수의 배역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형 탈에는, 「분시치」, 「겐타」, 「무스메」, 「후케오야마」 등이 있고, 배역에 맞춰 가발모양이 바뀌고 얼굴의 분장도 바꾸는 등, 같은 탈이라도 배역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표정이 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인형의 가발

분라쿠의 경우, 배역에 따라 가발을 딸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역에 맞춘 가발을 따로 만들어 둡니다. 인형 탈 및 배역에 맞춰 둥글게 도려낸 동판에 머리카락을 도롱이처럼 엮은 「미노게」를 꿰매 붙여, 그것을 잔 못으로 탈에 직접 고정하여 틀어 올립니다. 재료는 주로 사람의 머리카락을 사용하나, 가발을 부풀릴 때는 야크의 꼬리털을 이용합니다. 또한 분라쿠의 탈은 기름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머릿기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분라쿠의 의상

분라쿠의 의상은 사람의 의상과 크기에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인형조종수가 손을 넣을 수 있도록 등뒤에 구멍이 있습니다. 사람과 달리 인형은 몸체가 없기 때문에, 의상에는 일부 여름용을 제외하고는 전부 솜이 들어 있습니다. 의상은 종류, 모양 등 배역에 맞춰진 것임이지만, 반드시 엄격한 고증을 거친 것이라기보다, 연극의 소품으로서 무대효과를 극대화한 면이 큼니다. 가부키와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 소박한 감이 있습니다만, 시대물의 귀족 의상은 호화롭고 화려한 것이 많으며, 풍속물의 의상은 비교적 실생활의 의상에 가깝습니다. 의상은 무대전체에서 아름다운 색채를 꾸며내고 있습니다만, 가까이에서 보더라도 섬세한 무늬나 배역과의 어우러짐 등 흥미로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신판 우타자이몽」 오소메의 의상 일식

분라쿠의 소도구

무대에서 사용하는 도구나, 인형이 사용하는 칼, 부채, 우산 등을 말합니다. 분라쿠의 경우, 인형조종수가 조종이 가능하도록 인형이 사용하는 도구에 손잡이가 붙어 있는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도구는 인형의 크기에 맞춰 작고마한 것이 보통입니다만, 그 중에는 인형보다 크게 만들어진 것도 있으며, 무대에 올렸을 때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